

#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 연구\*

李 昶 憲

- |                           |                       |
|---------------------------|-----------------------|
| 1. 서론 : 경판방각소설의 간행        | 1)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종류 |
| 2. 『출판법』의 시행과 한남서림 판권지    | 2)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특징 |
| 1) 출판법의 시행과 판권지의 등장       |                       |
| 2) 판권지로 본 한남서림의 변화        |                       |
| 3.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종류와 특징 | 4. 한남서림 영업 활동의 변화     |
|                           | 5. 결 론                |

## 1. 서론 : 경판방각소설의 간행

『朝鮮語辭典』을 출판한 바 있는 博文書館의 주인 盧益亨과 잡지 『朝光』誌의 기자 사이에 『朝鮮語辭典』의 출판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대화는 출판 또는 출판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 文世榮氏의 『朝鮮語辭典』도 宅에서 出版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이가 그것을 編纂해 놓고 刊行費가 없었어 出版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했지요. 冊 같은 冊을 처음으로 한 번 出版해 봤습니다.〉

〈참 朝鮮語辭典의 刊行은 우리 學界에 큰 功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方面의 出版에 主力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朝鮮語辭典 같은 것은 犧牲的 出版입니다. 하고 이번 처음으로 良心的 出版을 해 보신 것이 아주 마음에 滿足한 듯한 그러한 態度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을 繼續하신다. (피어쓰기 및 밑줄은 인용자)<sup>(1)</sup>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犧牲的 出版”이라는 표현과 “良心的 出版”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出版文化의 殿堂 博文書館의 業績」, 『朝光』第四卷 第十二號, 1938년 12월 호.

이라는 표현은 『朝鮮語辭典』의 출판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출판과 직접 관련된利害 당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자는 이를 “良心的 出版”이라고 표현하여 출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두고 출판업자는 “犧牲的 出版”이라고 표현하여, 출판은 곧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朝鮮語辭典』의 출판은 출판계의 현실로부터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출판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출판업은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지 결코 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만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출판업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근대적 출판방식에 의존하여 출판된 출판물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각업자들에 의하여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방각소설의 출판 역시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犧牲的 出版”을 회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방각업자들이며, 특히 경판방각업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처음으로 간행한 방각소설은 무엇인가? 이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현전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답할 수밖에 없다. 현전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경판방각소설을 처음 간행한 시기는 어느 때이며 처음 간행한 작품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본다면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이라는 刊記를 가진 庚子年(1780년)에 발행한 『임경업전』을 근거로 삼아 답할 수밖에 없다.<sup>(2)</sup> 경판방각소설의 간행은 19세기 중반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방각소설로

(2) 낙장본인 『임경업전』의 卷尾에 판각된 刊記인 “歲庚子孟冬京畿開板”의 庚子年이 1780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18세기의 방각소설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임경업전』은, 1780년에 임경업전을 발행할 때 사용한 판목이 일부 훼손되거나 망실됨으로 말미암아, 몇몇 부분은 새롭게 補刻한 판목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1780년에 『임경업전』을 출판할 때 사용하였던 판목을 가져다가 출판한 것이다. 李昶憲, 1995, 『京板坊刻小說 板本研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26~143면 참조.

간행되어 독자층으로부터 대대적인 인기를 얻은 몇몇 작품들은 투자비용의 온전한 회수와 일정한 이윤이 보장된다는 보다 구체적인 예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방각업자들에 의하여 중복 출판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방각소설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작품을 여러 곳에서 출판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판본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의 결과 각각의 판본은 시장을 점차 지배하는 판본과 시장으로부터 점차 퇴장 당하는 판본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시장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으로부터 퇴장 당한 판본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였던 판목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실물자본으로서의 板木材라기보다는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곧 실물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廢木材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퇴장 당한 판목은 특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쟁력을 다시 지니게 될 때까지 완전히 방치되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재가공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가공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은 판목 전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목의 일부만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시장으로부터 퇴장 당한 판목의 일부분은 완전한 廢木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이처럼 시장 안에서의 치열한 판매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에게 판매되었던 경판방각소설은 모두 몇 작품이나 되며 또한 각각의 작품은 몇 차례나 판각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이들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모두 52종의 방각소설이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sup>(3)</sup> 이 가운데에는 단 1회만 방각소설로 출판된 것도 있는데, 이는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방각 시기가 비교적 늦어 방각이라는 방식으로 중복 출판하기보다는 활판 인쇄의 방식으로 중복 출판하게 된 결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작품에 대한

(3) 이들 52종의 작품은 3. 1)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종류에 제시되는 「표」를 참조할 것.

당대 독자층의 무관심 때문에 중복 출판이 지닐 수 있는 상품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방각업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하겠다.

## 2. 『출판법』의 시행과 한남서림 판권지

### 1) 출판법의 시행과 판권지의 등장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존한 소설책의 출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출판된 방각본 소설책의 판매는 시장경제라는 경쟁 원리에 의존하여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비록 새로운 생산기술인 납활자를 사용한 활판인쇄술이 도입되고 이것의 적극적인 활용이 지속되고 있었다<sup>(4)</sup>고는 하지만, 활판이라는 생산기술은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방각본 소설책의 출판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각본 소설책의 출판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활판인쇄술이 도입되던 시기에 있어서 활판인쇄술의 활용이 더욱 시급히 요청되던 곳은, 방각본으로 출판된 바 있는 소설책의 출판이라기보다는 소설책이 아닌 다른 서책들의 출판이었다. 물론 활판인쇄술의 도입과 이의 활용이 더욱 보편화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방각본으로 간행된 바 있는 소설을 활판본으로 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방각본 소설책과 활판본 소설책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며, 마침내 활판본 소설책이 방각본 소설책을 시장으로부터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활판이라는 생산기술의 도입이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존한 방각소설의 쇠퇴를 곧바로 가져오지는 아니하였다. 방각소설의 쇠퇴를 촉진한 것은 시장 안에서의 경쟁 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강요된 출판 시장의 재편이었다. 정치적 권력의 직접적인 제약으로부터

(4) 활판인쇄술의 도입과 이의 활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李相一, 1995, 「開化期 鉛活字導入에 관한 一考察」, 『書誌學報』 第16號에서 간략히 개관하고 있다.

자유로웠던 출판업자들이 출판을 하고, 이들에 의하여 출판된 서책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던 시장 곧 개방된 시장에서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강하게 제한된 일부 출판업자들만이 출판을 하고, 이들에 의하여 출판된 서책의 거래만이 가능한 시장 곧 폐쇄된 시장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직접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1909년에 반포된 출판법의 시행이다. 光武年間인 1909년 2월 23일 法律 第六號로 반포된 『出版法』에서는 “機械와 其他如何方法을 勿論하고 發賣 又は 頒布로 目的삼는 文書와 圖書를 印刷호을 出版(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때 其他如何方法에 해당하는 출판물의 하나에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하여 출판된 방각소설이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존하여 출판되는 소설책 역시 『출판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1909년의 『출판법』 시행은 어떠한 형태로이전 방각업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하겠다. 더군다나 『출판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文書圖書의 發行者는 文書圖書를 販賣호으로 營業삼는 者에만 限함”이라는 조건(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발행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은 비교적 영세한 방각업자들에게 일정한 곳마다 영업장을 개설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판각만을 담당하고 있던 刻手들도 별도로 독립된 인쇄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발행자에게 직접 예속되는 형태를 취하여야만 하였다. 더군다나 『出版法』은 인쇄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등한 의무를 요구하여 인쇄자 자신의 성명, 주소, 인쇄소, 인쇄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쇄한 문서 및 도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쇄자를 발행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 인쇄자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출판법』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그리고 인쇄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자와 발행자가 連印하여 稿本을 첨부한 후 許可를 받아야 하고, 출판 이후에도 製本 2部를 納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이라는 이중의 구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官報』 四千三百十一號, 1909.2.26., 「法律 第六號」.

더군다나 『출판법』은 문서 또는 도서의 말미에 저작자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자의 성명과 주소, 발행소 명칭과 주소, 인쇄소 명칭과 주소, 인쇄 일자, 발행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출판 허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제본 2부를 납부한 이후에도 출판을 허가한 문서나 도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쉽게 추적하여 유통 중에 있는 도서를 언제든지 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구속력을 지녔다 하겠다.

따라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하고자 하는 책마다 출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를 받고 출판한 도서가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風俗을 壞亂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도서의 발매 및 반포를 금지 당하고 압수 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까지를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더군다나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이미 출판된 도서를 再版——이때의 재판은 수정판 또는 개정판을 출판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새를 달리하여 출판하는 경우까지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이미 출판되어 발매 및 반포 중인 도서에 대하여도 발매 및 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191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금서와 관련된 조치이다.<sup>(6)</sup> 이는 출판법 시행 이전에 이미 출판되어 발매 중이던 도서 51종(총 65책)에 대해 『출판법』 제12조(외국인 저서에 대한 적용)와 제16조(기출판 도서에 대한 소급 적용)의 규정에 근거하여 安寧秩序를 妨害한다는 이유로 금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방각업자들 역시 방각소설의 지속적인 간행을 위해서는 『출판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작품에 대하여 출판 허가와 제본 납부를 반복하여야만 하였으며, 이러한 흔적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방각소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한남서림의 판권지를 첨부한 『삼국지』를 살펴보면<sup>(7)</sup> 표지에 대정 9년(1920년) 9월 2일에 제133호로 납본하였

(6) 『朝鮮總督府官報』 69號, 1910.11.19.,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告示 第七十二號」.

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卷首題 아래의 여백에 “朝鮮總督府保轉本”이라는 도장까지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결국 『출판법』의 시행에 있어서 허가는 출판사를 허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판하는 도서 한 권 한 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한 허가와 제본의 납부라는 사후 검열을 통한 통제라는 이중의 규제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출판되는 모든 도서들은 판권지를 첨부하여야만 하였다. 이는 곧 판권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방각소설의 출판 그리고 판권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방각소설의 거래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방각업자들은 먼저 판권지를 첨부하기 위하여 출판사를 설립하고 출판업 등록을 하여 認可 또는 許可를 받아야 했으며, 이미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존하여 출판하고 있던 소설책마다 출판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방각소설이 출판된 마지막 시기인 20세기 초의 방각소설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서 판권지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전하는 자료에 첨부된 판권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대 『출판법』 시행 이후 방각본을 취급하였던 서점으로는 新舊書林, 紙物書舖, 翰南書林, 匯東書館, 太華書館, 北村書舖, 朴星七書店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이들 가운데 신구서림, 지물서포, 한남서림, 회동서관에서 사용한 판권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일차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신구서림과 한남서림의 내백 및 후견인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sup>(10)</sup>

池松旭은 1900년대 초부터 新舊書林이란 書店을 경영하던 분으로서 대체로 武

(7)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분류기호 “한48-33”으로 된 3권 3책의 완질본과 “한48-33-2”로 된 2권 2책의 낙질본이 소장되어 있다.

(8)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출판법』의 시행에 따라서 작성되었을 납본 관련 문헌 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이들 이외에 『동몽선훈』(1916)을 출판한 朴元植書店, 『통감절요』 권10(1923)을 출판한 安城 新安書林 등이 있다고 한다. 安春根, 1968, 「坊刻本論攷」, 『書誌學』 창간호, 15면 참조.

(10) 柳鐸一, 1990(재판), 『韓國文獻學研究』, 亞細亞文化社, 170~177면.

橋的 出版性向을 이어 받았고, 愼村子라는 知識있는 後見者를 두고 出版事業을 하였다. 그리고 翰南書林은 新舊書林보다는 뒤에 設立되었지만 由洞, 宋洞, 紅樹洞의 出版性向을 이은 書店이며, 이를 經營했던 白斗鏞은 市井에 묻힌 知識人으로서 自己 著述을 남길 정도의 識見이 있었고 蓮波居士란 선비를 後見人으로 모시고 출판 事業을 했던 분이다.<sup>(11)</sup>

여기에서 우리는 한남서림의 출판성향이 19세기에 활동하고 있던 기존의 방각소 가운데 由洞, 宋洞, 紅樹洞의 출판성향 곧 실용서보다는 소설류를 출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과 그 經營주인 백두용이 後見인을 모시고 출판事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新구서림, 지물서포, 한남서림, 회동서관의 판권지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2)</sup>

書店名	編輯兼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新舊書林 京城南部紫岩洞 四十二統十戶	池松旭 (左 同)	殷泰聖 京城西部醬洞 五十五統六戶	大正二年八月十五日 印刷 大正二年八月二一日 發行
紙物書舖 京城南部紫岩洞 九十九統八戶	李鍾星 (左 同)	曹春和 京城西部涼洞 五十三統九戶	大正二年八月二十日 印刷 大正二年八月二十五日 發行
翰南書林 京城府仁寺洞 一百七十番地	白斗鏞 (左 同)	曹命天 (左 同)	大正五年六月二十五日 印刷 大正五年六月三十日 發行
匯東書館 京城府南大門通 一丁目十七番地	高裕相 (左 同)	辛有植 京城府臥龍洞 十四番地	大正七年二月六日 印刷 大正七年二月二十日 發行

## 2) 판권지로 본 한남서림의 변화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방각소설에 첨부되어 있는 판권지는 앞서 검토된 바 있는 1종의 판권지를 포함하여 모두 3종류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11) 위의 책, 177면.

(12) 위의 책, 170면.

판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판권지는 이미 앞에서 검토된 바 있는 翰南書林의 판권지이다. 그 내용을 앞의 도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판권지」

書店名	編輯兼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翰南書林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白斗鏞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曹命天 京城府堅志洞 二十一番地	大正一年 月二十五日 印刷 大正一年 月三十 日 發行

적성의전 「23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

印刷兼發行所

振替口座京城四四七八番

分賣所 京郷各書舖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

不許  
複製

編集兼  
發行者 白斗鏞

印刷者 曹命天

京城府堅志洞二十一番地

大正一年 月二十五日 印刷

京城府仁寺洞百七十番地

印刷兼發行所

振替口座京城四四七八番

分賣所 京郷各書舖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

不許  
複製

編集兼  
發行者 白斗鏞

印刷者 曹命天

京城府堅志洞王番地

大正一年 月二十五日 印刷

京城府仁寺洞百七十番地

첫 번째 판권지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라는 표현이다. “許可”가 아닌 “認可”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더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는 “編集兼發行者”의 “編集”이다. 여타의 다른 출판사의 판권지에서는 이를 모두 “編輯”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점과 한남서림에서 사용한 또 다른 판권지에서는 “編輯”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誤

척으로 보인다. 위의 판권지에 기록된 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인쇄년월일, 발행년월일, 편집자(저작자)의 성명과 주소,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 발행소의 명칭과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판권지에는 편집자와 발행자가 모두 백두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쇄소와 발행소가 모두 한남서림으로, 발행자인 백두용의 주소와 발행소인 한남서림의 주소 그리고 인쇄소인 한남서림의 주소가 모두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쇄자인 조명천의 주소만이 “京城府 堅志洞 二十一番地”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쇄년월일과 발행년월일을 붓으로 가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기고 있다. 이는 판권지를 미리 인출하여 놓았다가 제책하는 과정에서 기입할 목적으로 여백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판권지는 위의 첫 번째 판권지와 동일한 판목으로 인출한 판권지이기에 모든 사항이 첫 번째 판권지와 동일하지만, 편집 겸 발행자인 백두용의 주소가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에서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로 바뀐 것만이 다를 뿐이다. 이는 판목 자체를 수정하여 인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출한 판권지에다가 붓으로 직접 수정 가필한 것이다.

첫 번째 판권지에는 주소가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로 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판권지에는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남서림의 주소는 여전히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편집 겸 발행자인 백두용의 거주지 이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남서림의 이전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한남서림 판권지에 보면 한남서림의 주소까지도 바뀐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백두용의 거주지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발행일에 새겨져 있던 “三十日”의 “三十”을 산략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판권지를 살펴보면, 붓 또는 펜으로 가필하여 인쇄년월일과 발행년월일을 기록한 것도 있고 도장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도 있다. 이때 판권지에 기재된 인쇄 및 발행일자의 선후에 의하면 “三十”을 산략한 판권지의 날짜가 “三十”을 산략하지 아니한 판권지의 날짜보다 앞선

「두 번째 판권지」

書店名	編輯兼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翰南書林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白斗鏞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曹命天 京城府堅志洞 二十一番地	大正六年 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六年 月 日 發行

적성의전 「23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

印刷兼發行所

振替口座京城四四七八番

分賣所 京郷各書舖

朝鮮總督府  
警務總監府認可

不許  
複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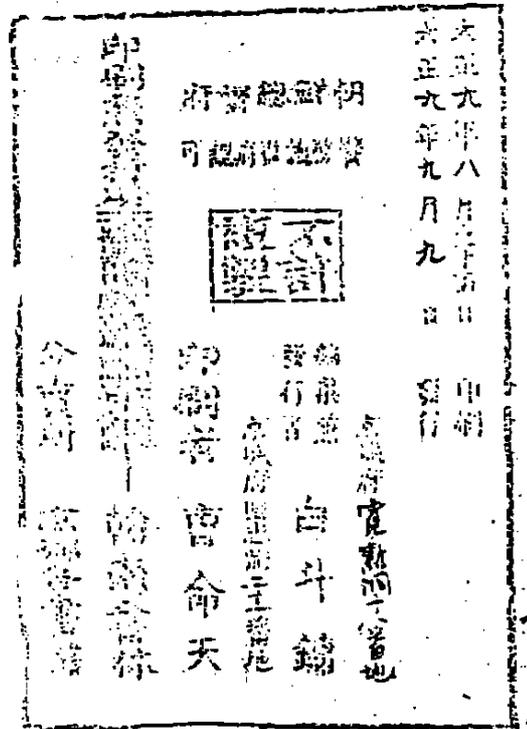
大正六年 月二十五日 發行

京城府仁寺洞百七十番地

編輯兼  
發行者  
白斗鏞

印刷者  
曹命天

京城府堅志洞二十一番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첫 번째 판권지의 판목을 가지고 일정한 양의 판권지를 미리 인쇄하여 놓고 사용하다가, 판목의 일부를 산락한 후 두 번째 판권지를 인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판권지와 두 번째 판권지를 함께 사용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인쇄일자 및 발행일자를 판권지에 가필할 때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첫 번째 판권지와 두 번째 판권지가 동일한 판목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세 번째 판권지는 판목을 새로 판각하여 사용한 판권지이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판권지에 도서목록을 수록하여 광고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

다는 점이다.

판권지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편집 겸 발행자인 백두용의 주소, 한남서림의 주소가 모두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로 바뀌어 있다는 점, 인쇄자가 “曹命天”에서 “金鉉秀”로 바뀌어 있다는 점, 따라서 인쇄자의 주소 역시 “高陽郡 龍江面 五百四十番地”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쇄 및 발행년월일을 여백으로 처리하여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붓이나 펜으로 가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도 살필 수 있다.

欄外에는 “本書林發行舊書目錄은 如左함”이라 하여 한남서림에서 발행하는 舊書 곧 방각이라는 생산기술에 의하여 출판된 서적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며, 아울러 “新書籍發行目錄”을 책값과 함께 나열하는 모습을 보

「세 번째 판권지」

書店名	編輯兼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翰南書林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白斗鏞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金鉉秀 高陽郡龍江面 五百四十番地	印刷   發行

흥부전 「25장본」 고려대학교도서관본

發行兼總發賣所	<table border="1"> <tr> <td>永</td> <td>其</td> </tr> <tr> <td>昌</td> <td>壽</td> </tr> </table>	永	其	昌	壽
	永	其			
昌	壽				
振替 京城四四七八番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翰南書林				

印刷所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印刷者	金鉉秀
編輯兼 發行者	白斗鏞
發行所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本書林發行舊書目錄

其壽	永昌
----	----

發行所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印刷所 京城府寬勳洞十八番地

印刷者 金鉉秀

編輯兼 發行者 白斗鏞

이다. 이처럼 판권지를 통하여 서적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은 서적 역시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방각본으로 간행되는 서적의 말미에, 방각본으로 간행한 서적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여야 하는가 하는 광고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여기에서는 방각본으로 출판한 서적을 “舊書”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활판본으로 출판한 서적을 “新書”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판본의 형태로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서적인 『懸吐彰善感義錄』에서 “新舊書”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新書”와 “舊書”라는 구분은 말 그대로의 새책과 옛책이라는 구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산기술에 의하여 출판된 책——곧 새로 도입한 납활자를 사용하여 활판 방식으로 출판한 책——과 기존의 생산기술에 의하여 출판된 책——곧 방각이라는 과거의 생산기술에 의하여 출판된 책——이라는 구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한 “新書”와 “舊書”라는 구분은 활판본(활자본 또는 구활자본)과 방각본이라는 생산기술에 따른 서책의 구분이라 하겠다.

또한 세 번째 판권지에는 기존의 판권지에 있던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라는 표현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출판법의 시행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기존의 판권지에는 分賣所를 “京鄉各書舖”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여기에서는 分賣所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總發賣所를 “翰南書林”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설의 유통과 관련하여 서점을 단위로 하는 유통망의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것은 앞으로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살핀 3종류의 한남서림 판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비교하여 보면, 먼저 한남서림의 위치가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에서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백두용의 주거지 移轉에 따른 것인지 혹은 한남서림의 이전에 따른 것

書店名	編輯兼 發行者	印刷者	發行年月日
翰南書林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白斗鏞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曹命天 京城府堅志洞 二十一番地	大正六年 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六年 月三十 日 發行
翰南書林 京城府仁寺洞 百七十番地	白斗鏞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曹命天 京城府堅志洞 二十一番地	大正六年 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六年 月 日 發行
翰南書林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白斗鏞 京城府寬勳洞 十八番地	金鉉秀 高陽郡龍江面 五百四十番地	印刷 發行

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세 번째 판권지에서 印刷所를 “翰南書林 印出部”라 하여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납활자를 사용한 활판인쇄라는 생산기술을 사용한 시기에 도 여전히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에 한남서림이 존재하였다는 점,<sup>(13)</sup> 그리고 『출판법』의 규제가 계속 유효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판권지의 기록은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각본의 형태로 출판되는 소설책이 한남서림의 영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아울러 활판본의 형태로 출판되는 비소설류 및 소설류의 서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서, 한남서림의 출판 활동은 이원화되어 결국 방각본은 “翰南書林 印出部”에서 인쇄하여 출판하고, 활판본은 근대식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출판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결국 1회의 인쇄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활판본의 경우에는 “發行 兼 總發賣所”로서의 “한남서림”과 “分賣所”로서의 “京鄉各書舖”라는 표현이 가능해지고, 필요할 때마다 인쇄가 가능한 방각본의 경우에는 “발행 겸 총발매소”로서의 “한남서림”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13) 白斗鏞 輯, 1924(3판), 『懸吐彰善感義錄』, 翰南書林. (禹快濟 編, 1984, 『舊活字本 古小說全集』第33卷, 銀河出版社 영인본).

또한 세 번째 판권지를 판각하면서 印刷者가 曹命天에서 金鉉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판목을 판각하던 刻手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印出匠만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출판법』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刻手보다는 印出匠으로서의 印刷者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金鉉秀의 주소인 “高陽郡 龍江面 五百四十番地”은 현재의 마포구 용강동 일대로 현재도 출판 관련 업소가 많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다.

### 3.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종류와 특징

#### 1)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종류

현전하는 52종의 경판방각소설<sup>(14)</sup> 가운데 한남서림에서 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판방각소설은 모두 22종이다. 물론 한남서림이 『출판법』의 시행 이전에도 출판업에 종사하였을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저간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에 간행된 바 있는 경판방각소설과 이들 가운데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경판방각소설을 비교 정리하기로 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사용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uimet	: Guimet박물관소장본	가람문고	: 서울대가람문고소장본
고려대	: 고려대도서관소장본	교회사	: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본
구주대	: 日本구주대도서관소장본	국립중	: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김근수	: 김근수소장본	김동욱	: 김동욱소장본
대영박	: 英國대영박물관소장본	동경외대	: 日本동경외대도서관소장본
동양문	: 日本동양문고소장본	동양어	: 프랑스동양어학교소장본
박노춘	: 박노춘소장본	백순재	: 백순재소장본
서강대	: 서강대도서관소장본	서울대	: 서울대도서관소장본
일사문고	: 서울대일사문고소장본	성균관	: 성균관대도서관소장본
소창진평	: 日本소창진평문고소장본	스킬렌드	: 『古代小說』

(14) 『금수전』은 『삼설기』에 수록된 단편 두 작품만을 독립시켜 인행한 것이기에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삼설기』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 연세대 : 연세대도서관 소장본
- 영남대 : 영남대도서관 소장본
- 이능우 : 이능우 소장본
- 정문연 : 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소장본
- 고려서림 : 『古典小說 2 春香傳』, 高麗書林
- 김석배 : 『春香傳 異本の 生成과 變貌 樣相 研究』,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 이능우 : No. : 『古小說研究』, 二友出版社
- 이상택 : 「哈佛大 燕京圖書館本 韓國古小說에 관한 일연구」, 『冠嶽語文研究』 16
- 임성래 : 「동양어문화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목록」, 『洙上古典研究』 7
- 전성택 : 「‘장화홍련전’ 異本攷」, 『韓國古典文學의 原典批評』, 새문사
- 전 집 : 金東旭(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羅孫書室
- 정양완 : 『日本東洋文庫本古典小說解題』, 국학자료원
- 춘향전연구 : 김동욱, 『春香傳研究』, 연세대학교 출판부
- 총림30 : 『原本國語國文學叢林 30』, 大提閣
- 총 서 : 『韓國古代小說叢書』, 梨花女子大學校
- 쿠 랑 : 李姬載(翻譯), 『韓國書誌』, 一潮閣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강태공전	상20장본	南谷新板				서강대(전집일29-38)						
	하19장본					서강대(전집일39-48)						
						연세대						
						영남대(古/813.5/장자방)						
곽분양전	상23장본		백/조 인사동			김동욱(전집일49-60)						
						1921 0044 정문연(D7B-20)R16N-1132-10						
						0045 국립중(한48-60)R35N-2916-4						
						1921 0047 국립중(古3636-2)R35N-2947-3						
						중24장본			백/조 인사동			김동욱(전집일61-72)
												1921 0044 정문연(D7B-20)R16N-1132-10
	0045 국립중(한48-60)R35N-2916-4											
	1921 0047 국립중(古3636-2)R35N-2947-3											
	하22장본		백/조 인사동				김동욱(전집일73-83)					
							1921 0044 정문연(D7B-20)R16N-1132-10					
						0046 정문연(D7B-20A)R16N-1132-9						
						0045 국립중(한48-60)R35N-2916-4						
1921 0047 국립중(古3636-2)R35N-2947-3												
상35장본					동양어(임성래)							
하34장본					동양어(임성래)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구운몽	단32장본A	孝橋新刊				대영박(전집사17-33)		
	단32장본B		백/김		0079	국립중(전집일85-100)한48-56		
			백/김	1920		고려대(고려서림, 고전소설제1집)		
			한남	1920		연세대		
			백/김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김만중)		
				0080	정문연(D7B-19D)R16N-1131-12			
단29장본	丁亥季春布洞				대영박(전집사1-15)			
금방울전	단28장본A					대영박(전집사49-62)		
	단28장본B					대영박(전집사35-48)		
	단20장본	宋洞新刊				김동욱(전집일283-292)		
	단16장본						하동호(전집사63-70)	
			한남	1934	0133	국립중(한48-71)R35N-2916-9		
					0132	국립중(한48-231)R35N-2944-4		
백/조 인사등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금방울)			
한남	미상	0135	정문연(D7B-8)R16N-1132-15					
한남	1921	0134	정문연R16N-1132-16					
금향정기	일36장본	由洞新刊				동양어(전집사71-90)		
	이36장본	由洞新刊				동양어(전집사90-105)		
	일20장본					이능우(전집일337-346)		
					동양어(임성래)			
김원전	단30장본					동양어(전집사107-122)		
김홍전	일29장본					동양어(전집사123-152)		
	이28장본					동양어(전집사123-152)		
남정팔난기	일30장본					대영박(전집사153-167)		
	이30장본					대영박(전집사168-182)		
	일17장본					서울대(전집일347-355)		
	이17장본					김동욱(전집일356-364)		
당태종전	단26장본		백/조	미상		김동욱(전집일365-377)		
			한남	1921	241	정문연(D7B-102)		
						영남대도남(古도/813.5/당태종)		
			한남	1920	242	국립중(한48-66)R35N-2918-1		
	한남	1921	240	고려대(C15-A74)R35N-3040-3				
단18장본					이능우(전집일379-387)			
					243	정문연(D7B-102A)R16N-1144-16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도원결의록	하17장본	南谷新板				박노춘(전집일389-397)	
백학선전	단24장본		한남			김동욱(전집일399-410)	
백학선전	단24장본		한남	1920	348	국립중(한48-49)R35N-2923-5	
			백/조	1917		영남대도남(古도/813.5/백학선)	
			한남	1921	349	정문연(D7B-164)R16N-1133-12	
						대영박(스킬렌드126)	
						동양어(쿠랑807)	
						페트로바목록(200)	
	단20장본	宋洞新刊				총서(이341-380)	
						연세대	
						소창진평(스킬렌드126)	
사씨남정기	상32장본					동양어(전집사273-328)	
	하34장본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제2장낙장			동양어(전집사290-306)	
	하34장본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낙질			김동욱(전집일411-427)	
	상21장본					동양어(전집사307-318)	
	중19장본					동양어(전집사319-329)	
	하23장본	歲在辛亥季冬由洞新板				동양어(전집사330-342)	
삼국지	일35장본	美洞新板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욱(전집일429-446)	
			백/조 관훈동	1920	429	국립중(한48-33)R35N-2930-3	
			백/조 관훈동	1920	430	국립중(한48-33-2)R35N-2930-2	
	이35장본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욱(전집일447-464)	
			백/조 관훈동	1920	429	국립중(한48-33)R35N-2930-3	
			백/조 관훈동	1920	430	국립중(한48-33-2)R35N-2930-2	
	삼30장본	己未孟夏紅樹洞新刊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욱(전집일465-479)	
			백/조 관훈동	1920	429	국립중(한48-33)R35N-2930-3	
	일25장본					대영박(전집사193-205)	
	이25장본					대영박(전집사206-219)	
	삼20장본A					대영박(전집사220-230)	
	삼20장본B	안성동문이신판				동양문(전집일481-490)	
삼20장본C	美洞新板	태화서관	1923			허동호(전집사183-192)	
		태화서관	1923	432	정문연(D17B-15B)R16N-1133-18		
사26장본					대영박(전집사231-243)		
오28장본					대영박(전집사244-257)		
??					428 정문연(D7B-15)	결본	
3권1책본			태화서관	1923	431	정문연(D7B-15A)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삼설기	상27장본					동양어		
	이26장본					동양어		
	삼27장본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				동양어		
	하26장본					대영박(전집사259-271)		
	상17장본					442	오한근(전집일1-9)	
							고려대(C15-A140)R35N-3043-12	
	삼18장본						오한근(전집일10-19)	
이18장본						오한근(전집일19-27)		
금수전	단20장본				147	서울대(전집일327-336)		
						고려대(C15-A52)R35N-3037-4		
토생전	단16장본	戊申十一月日由洞新刊				김동욱(전집삼369-376)		
서유기	상31장본	丙辰孟冬華山新刊			463	동양어(전집사343-358)		
						정문연(D7B-166)R16N-1136-5		
	하28장본	丙辰孟冬華山新刊			463	동양어(전집사359-372)		
						정문연(D7B-166)R16N-1136-5		
설인귀전	단30장본					동양어(전집사429-443)		
	상17장본					이능우(전집일543-551)		
소대성전	단36장본					대영박(전집사399-416)		
	단24장본					동양어(전집사385-397)		
						쿠랑(811,3349)		
	단23장본						대영박(전집사417-428)	
							교회사(813.5/소838)	
	단21장본						백순재(전집사373-383)	
	단20장본	안성?					동양문(전집일561-571)	
	단16장본			한남	1932	515	국립중(전집일553-560)한48-77 R35N-2930-7	
				백/조	1921	511	정문연R16N-1136-10	
				백/김	미상	517	정문연(D7B-4A)R16N-1136-11	
한남					518	고려대(C15-A58)R35N-3037-7		
						영남대도남(古도/813.5/소대성/c.1)	246695	
한남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소대성/c.2)	246692	
						영남대(古/813.5/소대성)	160398	
		514	서울대(상백古/813.5/B146s)					
			하바드(이상백)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수호지	일20장본					김동욱(전집이19-28)		
	이20장본					김동욱(전집이29-38)		
	삼21장본					김동욱(전집이39-49)		
		합풍경신년 (1860)				쿠랑(766)상하양책본		
숙영낭자전	단28장본					대영박(전집사445-458)		
						교회사(813.5/수246)		
		庚申二月紅樹 洞新刊				쿠랑(823), 임성래		
	단20장본					연세대(전집이9-18)		
	단16장본						박노춘(전집이1-8)	
							총서(일356-387)	
						586	국립중(한48-59)R35N-2952-2	
		백/김				589	고려대(C15-A57)R35N-3037-6	
		한남		1921	587	정문연(D7B-9)R16N-1136-17		
						588	정문연R16N-1136-18	
		백/김		1920			영남대(古/813.5/숙영낭)	260281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숙영낭)	246700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숙영낭)	246785	
숙향전	하30장본	戊午十月治洞 新板				김동욱(전집이51-65)		
						상33장본(춘향전연구:385)		
	상20장본					동양어(전집사459-469)		
	중21장본					동양어(전집사470-480)		
					603	국립중(전집이67-77)한48-80		
하23장본	戊午十月治洞 新板					동양어(전집사481-492)		
				603	국립중(전집이78-88)한48-80			
신미록	단32장본	辛酉二月紅樹 洞新板(1861)				김동욱(전집이89-104)		
			한남	1921	611	국립중(한48-63)		
			한남	1921	612	정문연(R16N-1136-22)		
			한남	1921	613	정문연(R16N-1136-23)		
	백/조 인사동		미상	614	정문연D7B-3(R16N-1136-24)			
심청전	단26장본					대영박(전집사439-505)		
	단24장본A					대영박(전집사507-519)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심청전	단24장본B		백/조	1920	648	국립중(전집이105-117)한48-46-2		
			한남	1920	647	국립중(한48-253)		
							총서(일229-276)	
			백/조 인사동	1921	649	정문연(D7B-25E)R16N-1136-25		
							일사문고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심청전)	246697	
			637	고려대(C15-A56)R35N-3037-5				
단21장본	안성판?				동양문고(전집이131-141)			
					이태극			
단20장본	宋洞新刊				김근수(전집이119-129)			
쌍주기연	단33장본	庚戌十一月武橋新刊			452	정문연(D7B-127)R16N-1137-5		
	단32장본					동양어(전집사521-537)		
	단22장본	宋洞新刊			453	고려대(C15-A139)R35N-3043-13	책사 윤음	
						가람문고(이능우:251)		
단16장본				454	국립중(전집일535-542)한48-52			
양산백전	단24장본		백/조			김동욱(전집이215-226)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양산백)	246705	
			백/조 관훈동	1920	663	국립중(한48-62)R35N-2950-3		
			한남	1921	664	정문연(D7B-157)R16N-1128-3		
양풍전	단24장본		백/조 관훈동	1920		김동욱(전집이227-238)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양풍전)	246693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양풍전)	246784	
			백/조 관훈동	1920	672	국립중(한48-76)R35N-2954-5		
							동양어(쿠랑781)	
					대영박(스킬렌드)			
	단20장본A	안성동문어신판	박성칠	1917	671	국립중(전집이239-248)한48-72		
							하바드(스킬렌드:253)	
					동양문고(정양환147-151)Ⅷ-4-235			
단20장본B					교회사(813.5/오543)			
옥주호연	단29장본	辛亥元月	백/조 인사동	미상	760	국립중(전집이249-263)고3636-7		
			한남	1920	759	국립중(한48-50)R35N-2934-4		
			한남	1921	761	정문연(D7B-154)R16N-1137-9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립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옥주호연	단29장본	辛亥元月	백/조 인사동	미상	762	정문연R16N-1137-8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옥주호)	246786	
		咸豐辛亥元月 武橋新刊				(춘향전연구:392)		
용문전	단36장본					김동옥(전집이265-281)		
	단25장본A					대영박(전집사539-550)		
	단25장본B	己未石橋新刊				대영박(전집사551-563)		
						대영박(전집오565-577)		
단24장본					교회사(813.5/노628)			
을지경덕전	단26장본	甲子季秋銅峴 新刊				(전집오579-591)		
						대영박(쿠랑758)		
						동양어(쿠랑3347)		
						스킬렌드		
35장본?	同治甲子銅峴				(춘향전연구:389)			
월봉기	일34장본	紅樹洞板				동양어(전집오593-610)		
	이33장본	由泉新刊				동양어(전집오611-627)		
	일20장본					동양어(전집오629-639)		
	이23장본					동양어(전집오640-652)		
	삼23장본	泉新刊				동양어(전집오653-664)		
월왕전	상20장본		백/조 인사동	1920		김동옥(전집이303-312)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월왕전v.1)	246694	
			한남	1920	796	국립중(한48-65)R35N-2934-8		
			한남	1921	797	정문연(D7B-122)R16N-1139-12		
	중24장본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옥(전집이313-324)	
			백/조 인사동	미상			영남대도남(古도/813.5/월왕전v.2)	246668
			한남	1920	796	국립중(한48-65)R35N-2934-8		
			한남	1921	797	정문연(D7B-122)R16N-1139-12		
			한남	1921	798	정문연(R16N-1139-13)		
	하19장본	由洞新刊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옥(전집이325-334)	
			한남	1920	796	국립중(한48-65)R35N-2934-8		
			한남	1921	797	정문연(D7B-122)R16N-1139-12		
			한남	1921	798	정문연(R16N-1139-13)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이해통전	단20장본					서장대(전집이421-430)			
						하바드			
						소창진평(스킬렌드)			
입장군전	단45장본	歲庚子孟冬京藏開板				연세대	남경업전		
	단27장본A	華泉重刊	백/조 인사동	1920	978	국립중(전집이431-444)古3636-5			
			백/조 인사동			연세대			
	단27장본B						성균관(D7B-34)		
							소련동방학연구소소장본		
	단21장본	丁亥孟冬					동양문고(전집이445-455)		
	단20장본	庚寅早秋布洞重刊					교회사(813.5/우979)		
	단17장본						김동욱(전집이457-464)		
단16장본					979	국립중(한48-69)R35N-2945-8			
임진록	일30장본					김동욱(전집이465-477)	낙장본		
						988	서울대(古813.53/1m5b)R35N-3022-6	영인본	
						989	정문연(D7B-13)R16N-1140-7	영인본	
	상25장본						대영박(전집오707-719)		
	이23장본						영남대도남(古도/813.5/임진록v.1)	245489	
	삼23장본A	甲午仲秋武橋新刊 옥천이서당				988	김동욱(전집이478-489)		
							989	정문연(D7B-13)R16N-1140-7	영인본
삼23장본B						영남대도남(古도/813.5/임진록v.2)	245490		
장경전	단35장본	壬子七月美洞重刊					대영박(전집오735-752)		
	단25장본						대영박(전집오721-733)		
							교회사(813.5/도304)		
	단16장본	안성판 (스킬렌드)						오한근(전집이491-498)	
								하바드(이상택)	
							천리대이마니시문고소장본		
장백전	단28장본						대영박(전집오753-767)		
							동양어(임성래)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장자방전	상21장본	南谷新板			1026	정문연(D7B-121)R16N-1141-5 영남대(古/813.5/장자방)	
	중18장본	南谷新板			1026	정문연(D7B-121)R16N-1141-5	
	하20장본	南谷新板			1026	정문연(D7B-121)R16N-1141-5	
장풍운전	단31장본					동양어(전집오769-784)	
	단29장본	戊午紅樹洞新刊				동양어(전집오785-799)	
	단27장본	戊午紅樹洞新刊				연세대(전집이531-544)	
	단19장본					정문연(D7B-105)R16N-1141-7	
장한결효기	단29장본	紅樹洞新刊	백/조 인사동	1920		김동욱(전집이563-577)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장한결)	246701
					1036	국립중(한48-58)R35N-2945-12	
			한남	1920	1035	고려대(C15-A73)R35N-3040-2	
						정문연(D7B-53A)R16N-1141-8	
장화홍년전	단28장본					동양어(전집오801-814)	
	단18장본A	紫岩新刊				김근수(전집이579-588)	
	단18장본B	宋洞新刊				미국회도서관(전성탁)	
적성의전	단23장본					김동욱(전집삼1-12)	
						총서(삼227-272)	
			백/조 관훈동	1920	1059	국립중(한48-78)R35N-2945-13)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적성의)	246766
			백/조 인사동	미상	1060	정문연(R16N-1141-12)	
			백/조 인사동	1921	1061	정문연(D7B-72B)R16N-1141-13)	
						동양어(입성래)	
	단19장본	안성동문이신판				동양문고(정양완)VII-4-235	
						소창진평(스킬렌드)	
	단30장본					Guimet(이능우:256)	
전운치전	단37장본	丁未仲春由谷新刊			1096	정문연(D7B-120)R16N-1142-2)	
	단22장본					동양어(전집오815-827)	
	단17장본					연세대(전집이589-597)	
정수정전	단17장본					오한근(전집삼59-67)	
					1091	정문연(D7B-6)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정수정전	단16장본A	大韓光武九年 仲秋蛤洞新刊				김동욱(전집삼51-58)		
	단16장본B		백/조			총서(일389-420)		
			백/조 관훈동	1920	1092	국립중(한48-67)R35N-2945-10		
			한남	1921	1093	국립중(古3636-6)R35N-2947-7		
제미무전	단32장본	紅樹洞重刊				동양어(전집오829-844)	26+6장본	
	단33장본					대영박(전집오845-856)	16+7장본	
	단20장본A	안성동문이신판				김동욱(전집삼69-78)		
	단20장본B					동양문고(VII-4-235)		
조용전	단30장본A	紅樹洞重刊				동양어(전집오869-883)		
						연세대		
	단30장본B		백/조 인사동	미상			김동욱(전집삼79-93)	
			백/조 인사동	미상			영남대도남(古도/813.5/조용전)	246696
			한남	1921	1172		정문연(D7B-37C)R16N-1149-19	
			한남	1934	1173		국립중(한48-75)R35N-2942-6	
	단20장본A					대영박(전집오857-867)		
	단20장본B	안성동문이신판				동양문(VII-4-235)		
단17장본					김동욱(전집오1095-1103)			
단16장본					김동욱(전집삼95-102)			
진대방전	단36장본	由洞新刊				김동욱(전집삼201-218)	18+02+16	
	단28장본A					대영박(전집오897-910)	18+00+10	
						교회사(813.5/주488)		
	단20장본					동양어(전집오885-895)	18+02+00	
	단28장본B					대영박(전집오911-924)	16+00+12	
단16장본					박성철서점	1917	국립중(전집삼219-226)한48-68	16+00+00
징세비태록	단32장본					김동욱(전집삼227-242)		
						동양어(임성래)		
						쿠랑(812)		
춘향전	단35장본					구주대(김석배)		
	단30장본A					동양어(전집오941-956)		
						(고려서림531-588)		
	단30장본B					동경외대(김석배)		
단23장본					(고려서림483-527)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립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춘향전	단23장본					교회사(813.5/추149)		
						Guimet(이능우:258)		
	단20장본	안성동문이신판					김동욱(전집삼305-314)	
							동양문고(VII-4-235)	
	단17장본						박노춘(전집삼295-303)	
	단16장본A						김동욱(전집삼287-294)	
	단16장본B						1339 국립중(총립30:7-38)한48-252	
							1341 고려대(C15-A14)고려서림445-78)	
							한남 1921 1338 정문연(D7B-1E:R16N-1143-10)	
							한남 1921 1340 정문연(D7B-1A:R16N-1143-12)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古/813.5/춘향전)								
백/조 인사동 미상 영남대도남(古도/813.5/춘향전)							246728	
현수문전	상20장본					김동욱(전집삼377-386)		
						동양어(전집오957-991)		
	중23장본						김동욱(전집삼387-398)	
							동양어(전집오957-991)	
	하22장본	油洞新刊					김동욱(전집삼398-409)	
							동양어(전집오957-991)	
상34장본						동양어(임성래)쿠랑798		
						(춘향전연구:387)32장본으로소개		
하32장본						동양어(임성래)쿠랑798		
홍길동전	단24장본					백/조;백/김 김근수(전집삼411-422)		
						총서(일277-324)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허균 등)		246787
						영남대도남(古도/813.5/허균)		245320
						영남대(古/813.5/허균)		160151
						한남 1920 1448 국립중(한48-44:R35N-2975-6)		
						1447 서울대(가람古/813.53/H41ha)		
	한남 1921 정문연(D7B-118)							
	단30장본	冶洞新刊					동양어(전집오1003-1018)	
	단23장본A	안성동문이신판					동양문고(전집삼445-456)	
	단23장본B	漁靑橋新刊					오한근(전집삼423-434)	
	단21장본	宋洞新刊					하동호(전집오993-1002)	
	단19장본		박성철서점	1917	1449	국립중(전집삼435-444)한48-44-2		

작품명	판종	간기	한남서림관련	연도	목록	소장처, 분류기호, 영인본, 필름번호	비고			
황운전	일30장본					동양어(전집오1019-1034)				
	이29장본					동양어(전집오1035-1049)				
	일22장본					(전집삼517-528)				
	이19장본					(전집삼528-537)				
	삼18장본					(전집삼537-546)				
	일15장본					김동욱(전집삼547-554)				
	이16장본					김동욱(전집삼554-562)				
	2권2책					정문연(D7B-96)	2책결			
홍부전	단25장본					김동욱(전집삼575-587)				
						유광수, (興甫傳研究), 啓明文化社				
						영남대(古/813.5/홍부전)	160295			
						교회사(813.5/호717)				
						백/조 인사동	1920		영남대도남(古도/813.5/홍부전)	246704
						한남	1920	1538	국립중(한48-74)(R35N-2976-12)	
									국립중(총립30)	
						한남	1921		일사문고	
						한남	1921	1540	정문연D7B-7(R16N-1151-20)	
						백/	1932	1539	정문연(R16N-1151-21)	
						백/김	1932	1537	고려대(C15-A10)R35N-3037-9	
									대영박(스킬렌드:쿠랑)	
									소창진평(스킬렌드)	
				동양어(쿠랑)						
단20장본	宋洞新板					김근수(전집삼563-573)				
						동양문고(스킬렌드:정양완)				

## 2) 한남서림 간행 경판방각소설의 특징

위에서 작성한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2종의 경판방각소설 중에서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것은 모두 22종의 작품이다. 각각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판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발행한 다른 판목이 없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제목의 작품을 발행한 다른 판목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면, 같은 제목으로 발행한 작품이 있는 경우조차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방각소설을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같은 제목으로 발행한 다른 판본이 없는 작품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분양전』, 『신미록』(紅樹洞), 『양산백전』, 『옥주호연』(武橋?)  
『월왕전』(由洞), 『장한절효기』(紅樹洞)

이들 작품 가운데 『곽분양전』과 『월왕전』은 기존에 두 권으로 구분하여 간행하던 것을 세 권으로 구분하여 간행한 것으로, 分卷의 방식만을 달리한 것일 뿐, 이미 간행한 바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판목을 가져다가 분권의 방식을 달리하기 위하여 판목의 일부분만을 손질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두 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든 세 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든 모두 동일한 판목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sup>(15)</sup>으로 이해하여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목을 온전히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예시한 작품들은 모두 하나밖에 없는 기존의 판목들을 가져다가 한남서림에서 다시 출판한 작품들로서 유일한 판목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刊記가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보면 紅樹洞板으로 간행하던 『신미록』과 『장한절효기』가 있으며, 由洞板으로 간행하던 『월왕전』이 있다. 이들 이외에 武橋板으로 간행<sup>(16)</sup>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옥주호연』, 그리고 정확히 어느 곳인지 坊刻所를 알 수 없는 『곽분양전』과 『양산백전』이 있다.

그런데 『양산백전』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판식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sup>(17)</sup> 이러한 모습은 항상 선행하는 판본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후행

(15) 李昶憲, 1987, 「京板坊刻小説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冠嶽語文研究』 第12輯.

(16) 『옥주호연』을 武橋板이라고 하는 것은 金東旭, 1976, 『增補 春香傳 研究』, 延世大學校出版部, 392면의 서술에 따른 것이다.

본을 판각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전하는 『양산백전』은 이에 선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양산백전』의 제1장부터 제10장까지를 번각하고,<sup>(18)</sup> 선행본의 제11장 이하에 수록되었던 行文을 대상으로 삼아 板下本을 새롭게 고쳐 쓴 뒤에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행본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를 유일본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의 판목은 이미 『출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판각되어 방각소설을 출판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9)</sup> 한남서림은 이들 기존의 판목을 가져다가 방각소설을 출판하였던 것인데, 이는 한남서림에서 이들 판목을 직접 판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한남서림이 출판법 시행 이전에 紅樹洞이나 武橋 등과 같은 어떤 방각소의 명칭을 가지고서 방각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되었던 홍수동이나 유동 또는 무교가 한남서림의 전신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홍수동이 한남서림의 전신이었다면 “戊午紅樹洞新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단29장본’ 『장풍운전』이나 ‘단27장본’ 『장풍운전』을 한남서림에서 간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에서 『장풍운전』을 한남서림에서 간행하였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한남서림이 “由洞, 宋洞, 紅樹洞的 出版性向을 이은 書店”<sup>(20)</sup>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한남서림의 전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향은 紅樹洞이라는 간기를 가진 작

(17) 특히 판심계의 위치 변화를 고려한다면 『양산백전』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격의 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세 번째로 검토할 『백학선전』, 『심청전』 등과 같은 성격의 판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8) 경우에 따라서는 판목 자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전체의 분량을 고려한다면 번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9) M. Courant이 *Bibliographie Coréene*(李姬載 翻譯, 1994, 『韓國書誌』, 一潮閣)에서 이들 판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분양전(788/3351)』(COR.I.161 cp.; COR.I.146.; COR.I.161.), 『신미록(818)』(COR.I.324 cp.), 『양산백전(806/3359)』(COR.I.176 cp.; COR.I.144.), 『옥주호연(790)』(COR.I.170 cp.), 『월왕전(780/3350)』(Mayers, I, 276; COR.I.163.), 『장한절효기(799)』(COR.I.174 cp.).

(20) 柳鐸一, 앞의 책, 177면.

품들뿐만이 아니라 由洞이나 武橋라는 간기를 가진 채 출판된 바 있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들 기존의 판목이 한남서림으로 흘러들어가 방각소설로 다시 출판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판방각소설의 전반적인 출판 경향이 시간이 오랏수록 한 권을 구성하는 장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sup>(21)</sup>을 고려한다면, 이들 판목은 이미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판목으로서 사장된 채 버려진 판목 곧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폐목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판목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처지에 있던 판목이 『출판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제한된 몇몇의 출판물만이, 곧 허가를 받은 출판사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출판물만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제한된 시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재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방각업자가 출판할 원고를 구하여 이를 판목에 새기도록 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소비자인 독자에게 판매할 때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과 작업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크게 판각비용과 인출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판각비용은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된 판목을 마련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며, 판각비용의 총액은 인출 부수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인출비용은 완성된 판목을 가지고 원하는 부수만큼의 작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부수를 인출할 것인가에 의하여 총액이 결정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들 판각비용과 인출비용이 한 권의 책값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보면, 인출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권의 책값을 구성하는 비율에 있어서, 판각비용이 책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인출비용이 책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21) 19세기말이나 20세기 초에는 대략 한 권을 구성하는 작품의 분량이 20장 내지 16장 정도의 분량을 보인다. 李昶憲, 1995, 『京板坊刻小說 板本研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참조.

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물론 인출비용 자체는 인출할 당시의 종이값이나 먹값 등 물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판목을 판각한 초기에는 한 권의 책값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판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과 인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판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판목을 계속 사용하여 일정한 부수 이상의 인출이 지속되면 판각비용이 책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것이 되고 오히려 인출비용이 그것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에 투자한 판각비용이 책값을 구성하는 비율은 더욱 미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방각소설을 간행할 한남서림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목을 처음부터 다시 새기는 것보다는 기존의 판목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기존 판목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판목을 다시 새기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남서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판목을 새기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초기자본——그 대부분을 판각비용이 차지한다고 하겠다——의 투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판목이기에 거의 헐값에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목을 인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비록 이들 판목을 이용하여 한 권을 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출비용——그 대부분을 종이값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당대에 직접 판각한 판목을 사용한 출판물의 인출비용보다 높기는 하지만, 한 권의 출판비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판각비용을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판목을 사용한 출판은 판각비용이라는 초기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기에 인출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판비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판목 곧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회복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판목이 당대에 현전

하지 아니한 유일본으로서의 판목이기에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회고적 혹은 의고적 취향을 가진 상품 구매자에게 적합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또한 큰 강점을 가진다 하겠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매우 흡사하지만, 같은 제목으로 발행된 다른 판본이 있다는 점 곧 경쟁관계에 놓인 판본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운몽』, 『당태종전』, 『삼국지』(美洞 및 紅樹洞)

『임장군전』(華泉), 『조웅전』, 『홍부전』

위에 열거한 작품은 경쟁관계에 놓인 판본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 첫 번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판본이다.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다른 판본과 이 판본 사이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 판본보다 선행하는 판본과 이 판본보다 후행하는 판본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판본에 선행하는 판본은 없고 후행하는 판본만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구운몽』, 『임장군전』, 『조웅전』 등은 선행하는 판본과 후행하는 판본이 모두 있는 경우이다. 이때 선행하는 판본에 대하여 이들 판본이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열거한 『구운몽』 이하 『홍부전』은 모두 이에 후행하는 판본이 있다는 점에서 후행하는 판본에 대하여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판본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판본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자신보다 앞서 나온 곧 선행하는 판본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자신을 뒤따라 나온 곧 후행하는 판본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특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이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검토한다면, 이들 판본이 후행하는 판본에 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후행본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져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판목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으로부터 자연스레 퇴장 당한 판목이 한남서림에 의하여 다시 활

용되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시장의 재편성 곧 『출판법』의 시행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30장으로 이루어진 서책으로 출판된 경우인 ‘가30장본’과, 20장으로 이루어진 서책으로 출판된 경우인 ‘나20장본’이 있다고 하자. 분명히 ‘가30장본’은 ‘나20장본’에 비하여 인출비용이 매우 높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가격 경쟁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30장본’은 판각이 이루어진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판각비용의 대부분을 이미 이익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에, 인출비용이 출판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출판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30장본’은 이미 시장으로부터 퇴장당한 판목이라서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 작품을 다시 출판하려는 새로운 출판업자 곧 방각업자에게 아주 험한 값으로 넘겨진 결과, 인출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인수한 방각업자는 비록 인출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초기 투자 자본이라고 할 판각비용을 뭇돈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본을 운용하여 출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었다 하겠다.

따라서 ‘가30장본’은 인출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판각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판각비용이 높고 인출비용이 낮은 후행본인 ‘나20장본’과 가격 경쟁이 가능해진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20장본’의 책값 중에서 판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따라서, ‘가30장본’ 역시 시장에서 퇴장 당할 수밖에 없는 판본이라 하겠다. 그러나 『출판법』을 시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출판사를 설립하여 방각소설을 출판하는 일이 과거처럼 단순히 방각소를 꾸려나가는 것과는 매우 성격을 달리 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출판허가를 받고 출판된 ‘가30장본’에 해당하는 판본이 출판허가를 받지 아니한 ‘나20장본’에 해당하는 판본을 시장으로부터 구축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들은 앞서의 두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다. 우선 이들 작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백학선전』, 『심청전』, 『양풍전』, 『적성의전』, 『홍길동전』

위에서 열거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인다. 그것은 곧 이들 작품의 중간에서 판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백학선전』을 예로 삼아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백학선전』은 제1장부터 제24장까지 모두 반엽 15행의 형식으로 판각된 판본이다. 그러나 제1장부터 제20장까지(이를 편의상 전반부라 지칭한다)와 제21장부터 제24장까지(이를 편의상 후반부라 지칭한다)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형태적 특징이 있다. 먼저 魚尾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상화문어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후반부는 상흑어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板心題의 경우 모두 “빅”으로 새겨져 있으나 그 크기에 있어서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약간 더 큰 양상을 보인다. 특히 刻字體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전반부의 각자체가 비교적 둥글고 원만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각자체는 매우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각자체라 하겠다. 또한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도 후반부가 전반부에 비하여 조금 더 크게 새겨져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전반부와 후반부의 모습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본으로서의 外樣的 整齊性<sup>(22)</sup>을 잃고 있는 모습을, 위에 열거한 『심청전』(제24장), 『양풍전』(제21장 이하 제24장), 『적성의전』(제21장 이하 제23장), 『홍길동전』(제21장 이하 제24장)의 후반부<sup>(23)</sup>에서 모두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곧 전반부에 해당하는 판목의 판각 시기와 후반부에 해당하는 판목의 판각 시기가 각각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자체 역시 후반부에서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후반부의 판하본을 쓴 사람과 전반부의 판하본을 쓴 사람이

(22) 木板本은 “출판해야 한다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정을 되도록 정확하게 보고, 文獻의 내용을 完結지어 출판하게 되는 것”이라 하여 完結性을 가지고 있으며, “완결된 내용을 아무렇게나 써서 출판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의 크기, 板形의 조절, 편집상의 배려 등 그 나름대로의 美的 調和를 꾀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여 外樣的 整齊性이 짙다고 하였다. 柳鐸一, 앞의 책, 18면.

(23) 『홍길동전』의 후반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鄭鈺東은 “後代 他人의 손에 의하여 補刻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하였다. 鄭鈺東, 1983 (재판), 『洪吉童傳研究』, 民族文化社, 142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판목을 인수한 한남서림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판목을 한남서림에서 인수하여 출판한 것인지 이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미 변화가 이루어진 판목을 한남서림에서 인수하여 출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sup>(24)</sup> 만일 이러한 변화가 판목을 인수한 한남서림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 판목으로 인쇄한 출판물은 당대의 『출판법』에 따라 모두 한남서림에서 발행하였다는 판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에는 이들 판권지가 없는 것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출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남서림이 방각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장된 판목을 인수하여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 개연성을 온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남서림이 『출판법』 시행 이전에 어떠한 형태로 방각업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었느냐는 문제<sup>(25)</sup>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반부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들 판목을 한남서림에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미 사장되었던 판목을 한남서림에서 인수하여 출판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세 번째 경우 역시 앞서의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들 역시 판각을 위한 초기 자본 곧 판각비용의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각각의 작품이 23장 또는 24장의 분량으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24) M. Courant의 『韓國書誌』에 의하면, 이들 작품 가운데 『백학선전(807)』(COR.I.175 cp.; B.M.15260 c.10.), 『양풍전(781)』(COR.I.166 cp.; B.M.15260 c.19.), 『적성의전(822)』(COR.I.177.; B.M.15260 c.22.)이 보인다. 『홍길동전(821)』에서는 24장본이 아닌 30장본을 『심청전(809)』에서는 24장본이 아닌 16장본을 언급하고 있다.

(25) 이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방각업자들의 구체적인 영업 활동 모습을 전하는 관련 자료 자체가 희소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식의 논증은 가능하겠지만 실증되기는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각자체에 대한 치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방각소설이 모두 앞서 검토한 세 경우와 같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아래에 열거하는 작품들도 역시 앞서의 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출판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판목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인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판본도 있을 수 있기에, 한남서림에서 판목의 판각부터 시작하여 모든 출판 과정에 참여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서 서술할 네 번째 경우이다.

『금방울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정수정전』, 『춘향전』

경판방각소설의 목록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표」와 위에 열거한 다섯 개의 작품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금방울전』의 경우 두 종류의 ‘단28장본’과 한 종류의 ‘단20장본’(宋洞新刊)이 이미 간행된 바 있으며, 『소대성전』 역시 ‘단36장본’, ‘단24장본’, ‘단23장본’, ‘단21장본’, ‘단20장본’ 등이 이미 간행된 바 있다. 또한 『숙영낭자전』의 경우 ‘단28장본’과 ‘단20장본’이 간행되었으며, 『정수정전』의 경우 ‘단17장본’과 ‘단16장본’이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춘향전』의 경우 ‘단35장본’, 두 종류의 ‘단30장본’, ‘단23장본’, ‘단20장본’, ‘단17장본’, ‘단16장본’이 간행된 바 있다.

『정수정전』과 같은 작품의 경우, 선행 판본 가운데 ‘단17장본’, ‘단16장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남서림에서 판각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 판목들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목들을 한남서림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령 『정수정전』(蛤洞新刊) ‘단16장본’의 경우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이라는 간기를 보면 1909년 『출판법』이 시행되기 4년 전인 1905년에 판각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번각한 것이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정수정전』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남서림에서 판각한 『정수정전』의 판각시기가 한남서림이라는 출판사의 성립 이후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蛤洞新刊” 『정수정전』을 번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남서림의 정수정전은 1905년부터 1917년 사이에 판각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비록 『출판법』이 1909년 2월 23일에 반포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판목

을 사용하여 인출하는 것은, 『출판법』 시행 이전에 한꺼번에 인출한 것을 『출판법』 시행 이후에 발매 및 반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각소 또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大韓光武九年”이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출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였을 경우, “大韓光武九年仲秋蛤洞新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정수정전』은 간기의 일부 그 중에서도 특히 “大韓光武”라는 연호를 산락하여야만 하였을 것이다.<sup>(26)</sup> 어찌되었건 이들 『정수정전』이 출판물에 대한 압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이건 출판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전하는 방각본들의 판권지를 살펴보면, 1912년(明治 45년)의 판권지를 가진 北村書舖, 1913년(大正 2년)의 판권지를 가진 新舊書林과 紙物書 를 볼 수 있는 바, 『출판법』에 따른 본격적인 출판사의 허가는 1912년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1912년은 활판이라는 새로운 인쇄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고전소설 간행을 볼 수 있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는 단지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거나 아니면 편의적 방법이 동원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실정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색한 일인 것처럼, 『출판법』이 반포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출판법』을 충실히 지켰다고 보는 것 역시 너무나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1909년 『출판법』의 시행 이후 1910년까지 출판물에 대하여 압

(26)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 교과서의 원고에 대하여 검열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가령 “學部檢定許可”로 출판하는 李相益(編), 1908, 『初等近世算術』, 徽文에 대한 검열 양상을 살펴보면, “隆熙”나 “光武”와 같은 표현은 “明治”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我韓”은 “朝鮮”으로, “我國”은 “我日本國”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洪皓善, 1995, 『大韓帝國末期 日帝의 教科書 統制 要因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85~188면 참조). 이러한 검열 방식에 따른다면 “大韓光武”라는 표현 역시 산락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수조치를 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치안 방해 또는 안녕질서 방해 그리고 무허가 출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1909. 7.10. 『勉庵先生文集』 6冊(卷之四, 五, 九, 十二, 十三, 十四, 十六)과 『勉庵先生文集附錄』 2冊(卷之一二, 卷之三)을 治安 妨害(16조)를 이유로 압수(著作者: 崔永祚). (內部告示 第四一號, 官報 4427號, 1909.7.13.)
- 1909.10. 8. 『東國文獻保有』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 (內部告示 第七二號, 官報 4502號, 1909.10.11.)
1910. 4.15. 『中等唱歌』 全一冊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李聖植 著作) (內部告示 第三二號, 官報 4656號, 1910.4.19.)
1910. 4.20. 『樂典教科書』 全一冊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李基鐘 著作) (內部告示 第三八號, 官報 4660號, 1910.4.23.)
1910. 5. 7. 『千歲曆』 全一冊을 許可를 受치 아니하고 出版(13조)한 이유로 압수. (內部告示 第四七號, 官報 4674號, 1910.5.10.)
1910. 9. 6. 『兩義士合傳』을 治安 妨害(12조)를 이유로 압수. (統監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四十六號, 朝鮮總督府官報 15號, 1910.9.14.)
- 1910.10.26. 『愛國同盟團勸義文』(문서)을 治安 妨害(12조)를 이유로 압수.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六十三號, 朝鮮總督府官報 52號, 1910.10.29.)
- 1910.11.19. 『初等大韓歷史』 등 51종(총65책)을 安寧秩序 妨害(12,16조)를 이유로 압수.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告示 第七十二號, 朝鮮總督府官報 69號, 1910.11.19.)

이상의 압수조치에 『금방울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정수정전』, 『춘향전』 등과 같은 소설책 종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활판본 구소설의 출판에 있어서 불허가 전수가 없었다는 점<sup>(27)</sup>을 고려한다면 『출판법』 시행 직후에 있어서도 방각소설에 대한 압수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한남서림에 의하여, 혹은 한남서림이라는 상호로 출판사 등록을 하기 이전의 방각소설로서의 한남서림에 의하여, 경영주인 백두용의 주도에 따라 기존의 『정수정전』 ‘단16장본’(蛤洞新刊)을 『정수정전』으로 번각하

(27) 李昶憲, 1996, 「20세기초 방각소설의 변모양상」, 『韓國文化』 18, 149면.

여 출판한 결과 이들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였던 것처럼, 『춘향전』 역시 기존의 『춘향전』 ‘단16장본’을 번각하여 한남서림에서 출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위의 『금방울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정수정전』, 『춘향전』 등은 20세기 초에 한남서림에 의하여 번각 등의 방식으로 새로이 판각된 판목에 의하여 출판된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서 보면 이들 판본은 앞서 검토한 세 경우의 판본과 비교하였을 때, 판각비용이라는 초기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인 판본이었으며, 반면에 16장의 체재라는 점에 있어서 인출비용——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종이값이었다——을 절약할 수 있는 판본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한 권을 단위로 하여 출판비용을 산출한다면, 판각비용이 거의 들지 아니하고 인출비용이 많이 드는 출판물인 앞서 검토한 세 가지 경우의 단위당 출판비용이나 판각비용은 비록 많이 들지만 인출비용이 적게 드는 출판물인 네 번째 경우의 단위당 출판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이들 네 종류의 판본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권이 16장으로 이루어진 네 번째 경우의 작품들이라 하겠다. 이들 판본은 새로운 인쇄기술인 활판에 의하여 이들 작품의 출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 채 활판본 구소설과 경쟁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韓紙(楮紙)와 洋紙 사이의 紙價 차이로 말미암아 韓紙(楮紙)를 통한 인출이 어렵게 되자 한지가 아닌 양지에 의한 인출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마지막까지 활판본과 계속 경쟁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16장을 한 권으로 하여 간행된 한남서림판 방각소설 역시 궁극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사장될 수밖에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물론 앞서 언급한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제적인 요인을 제외하였을 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요인으로 圖書文化를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고전소설류를 읽는 독자층의 소멸<sup>(28)</sup>이라기보다는 도서문화 자체의 변화이다. 곧 활판으로 출판한 도서가 보편적인 것이 되고 방각으로 출판한 도서가 이미

낮선 것이 됨에 따라서, 방각본이 출판물 시장으로부터 자연스레 도태된 것이라 하겠다. 마치 오늘날 가로쓰기 조판 방식으로 출판된 출판물에 익숙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선 시기의 세로쓰기 조판 방식으로 출판된 출판물은 이미 낯선 것이 되어서, 결코 그들이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문, 잡지, 교과서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출판물이 활판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방각 방식으로 이루어진 출판물은 이미 출판물 시장으로부터 일탈하였다 하겠다. 다만 몇몇 好古的 취향을 지닌 한정된 독자들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의 수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방각소설이 독자들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새로 등장한 활판본 고전소설이 대신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활판본을 출판하던 출판사주와의 인터뷰 기사는 출판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협력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바로 활판본 소설이 등장하던 초창기의 모습이며 또한 방각본 소설이 쇠퇴하여 가던 시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네 그런데 그때는 冊을 交換을 했습니다. 가령 甲이라는 出版社에서 甲이라는 書籍을 出版하면 乙이라는 出版社에서 出版한 乙이라는 書籍과 交換을 하고 같은 書籍은 發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든 것이 次次 競爭을 하게 되면서 版權이 없는 것이라 너도 나도 發行을 하게 되었지요.<sup>(29)</sup>

위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甲이라는 出版社에서 甲이라는 書籍을 出版하면 乙이라는 出版社에서 出版한 乙이라는 書籍과 交換을

(28) 이를 바로 고전소설을 읽는 독자층의 상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1938년의 출판사주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하여서도 살필 수 있다. 「出版文化의 殿堂 博文書館의 業績」, 『朝光』 第四卷 第十二號, 1938년 12월호.

〈네 그 後 말씀이요? 그 후엔 春香傳, 沈淸傳, 玉樓夢, 劉忠烈傳 그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種類의 舊小說들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 손을 드러 저 쪽 書架를 가르친다.

〈그래 그런 것들이 잘 팔렸습니까?〉

〈잘 팔니구 말구요. 지금도 잘 팔니지요. 예나 이제나 같습니다. 春香傳, 沈淸傳, 劉忠烈傳 이 셋은 農村의 教科書이지요.〉 (띄어쓰기 인용자)

(29) 「尺牘類에 産聲을 發한 永昌書館의 今日」, 『朝光』 第4卷 第12號, 1938년 12월호, 318면.

하고 같은 書籍은 發行하지를 않"았던 그때가 바로 활판본 고전소설 출판의 초창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에 방각본 고전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와 활판본 고전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 사이에서도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역시 일시적 현상이었음을 위의 인터뷰 기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쟁이 차츰 강화되면서 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동일한 작품을 활판본으로 간행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방각소설을 출판하던 방각소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방각소설이 나타난 초창기에는 방각소끼리 자신들이 출판한 방각소설을 서로 교환하였으나, 경쟁이 차츰 강화되면서 다른 방각소에서 이미 출판된 바 있는 동일한 제목의 작품을 판각하여 출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현전하는 이본들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방각소설 역시 판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판된 판본을 가져다가 解冊하여 그대로 판하본으로 삼아 번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겠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는 책이 단순한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매매를 전제로 하고 생산되는 상품으로서의 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소설이라는 문학적 내용을 담는 그릇 또는 매체로서의 소설책이 분명한 상업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출판하는 것 역시 분명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회에 있어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겠다.

#### 4. 한남서림 영업 활동의 변화

한남서림의 판권지에 기재된 사항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한남서림이 어디에서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하였는지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한남서림의 사주는 백두용이다. 그는 경성부 인사동 백칠십번지에 거주

하면서 한남서림이라는 출판사——이 시기의 출판사는 서점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출판사이다——를 운영하였던 인물이다. 한남서림에서 인쇄를 담당하였던 인물은 조명천이다. 그는 경성부 견지동 이십일번지에 거주하였다. 이때 판목을 가지고 직접 인출하던 작업 장소가 인사동에 있는 출판사였는지, 아니면 조명천의 거주지인 견지동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판권지에 기록된 바를 따른다면 인쇄소 및 발행소를 인사동으로 기록하고 있기에 인사동에 있는 출판사에서 직접 인출 작업을 하였으며, 위에 든 견지동은 단지 조명천의 거주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후 백두용은 출판사를 인사동에 그대로 둔 채, 관훈동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판권지가 두 번째 판권지이다. 이때의 인쇄자 역시 첫 번째의 판권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조명천이었다. 백두용이 거주지를 옮긴 것이 출판업의 호황에 힘입은 경제적 여유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박문서관, 영창서관, 덕흥서림의 경우 출판업의 호황에 힘입어 영업 장소를 옮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두용 역시 초창기의 호황에 힘입은 경제적 여유로 말미암아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地籍目錄<sup>(30)</sup>이다. 1917년에 작성된 지적목록에 따르면 백두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인사동 18번지 66평(지가총액 1584원)이 전부였다. 1927년에 작성된 지적목록에 따르면 백두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인사동 171번지(40坪), 인사동 171-1번지(6坪5合), 관훈동 15번지(104坪), 관훈동 18번지(36坪)로 지가총액은 2929.50원이다. 한남서림과 관련된 지번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다가 인사동에 있는 인쇄소 겸 출판사인 한남서림을 백두용의 새로운 거주지인 관훈동으로 옮긴다. 이를 반영한 판권지가 세 번째 판권지이다. 이때 인쇄자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명천을 대신하여 나타난 인물이 바로 김현수이다. 김현수의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오백사십번지로 나타난다. 조명천과 김현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불

(30) 『1917年 大正六年 京城府管內地籍目錄』 및 『1927年 昭和二年 京城府管內地籍目錄』(韓國學振興院 影印本).

지번	평수	1917년(대정6년)		1927년(소화2년)	
		지가	소유주	지가	소유주
인사동 170	66.0	1584.00	白斗鏞	1580.00	禹鳳雲
인사동 171	40.0	600.00	崔昌圭	600.00	白斗鏞
인사동 171-1	6.5	기재사항없음		97.50	白斗鏞
관훈동 15	104.0	1404.00	尹柱瓚	1404.00	白斗鏞
관훈동 18	36.0	828.00	秋教瓚	828.00	白斗鏞
견지동 21	53.0	768.50	金裕弘	768.50	白斗鏞

명확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영업 장소의 이동이 있었다<sup>(31)</sup>는 사실이며, 단위면적의 지가가 처음 한남서림을 시작한 인사동이 평당 24원, 한남서림을 새로 옮긴 관훈동이 평당 23원이라는 점에서 인사동이 좀 더 변화가에 해당한다 하겠다.

1929년에 작성된 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이들의 위치를 표시하면 다음 면의 지도와 같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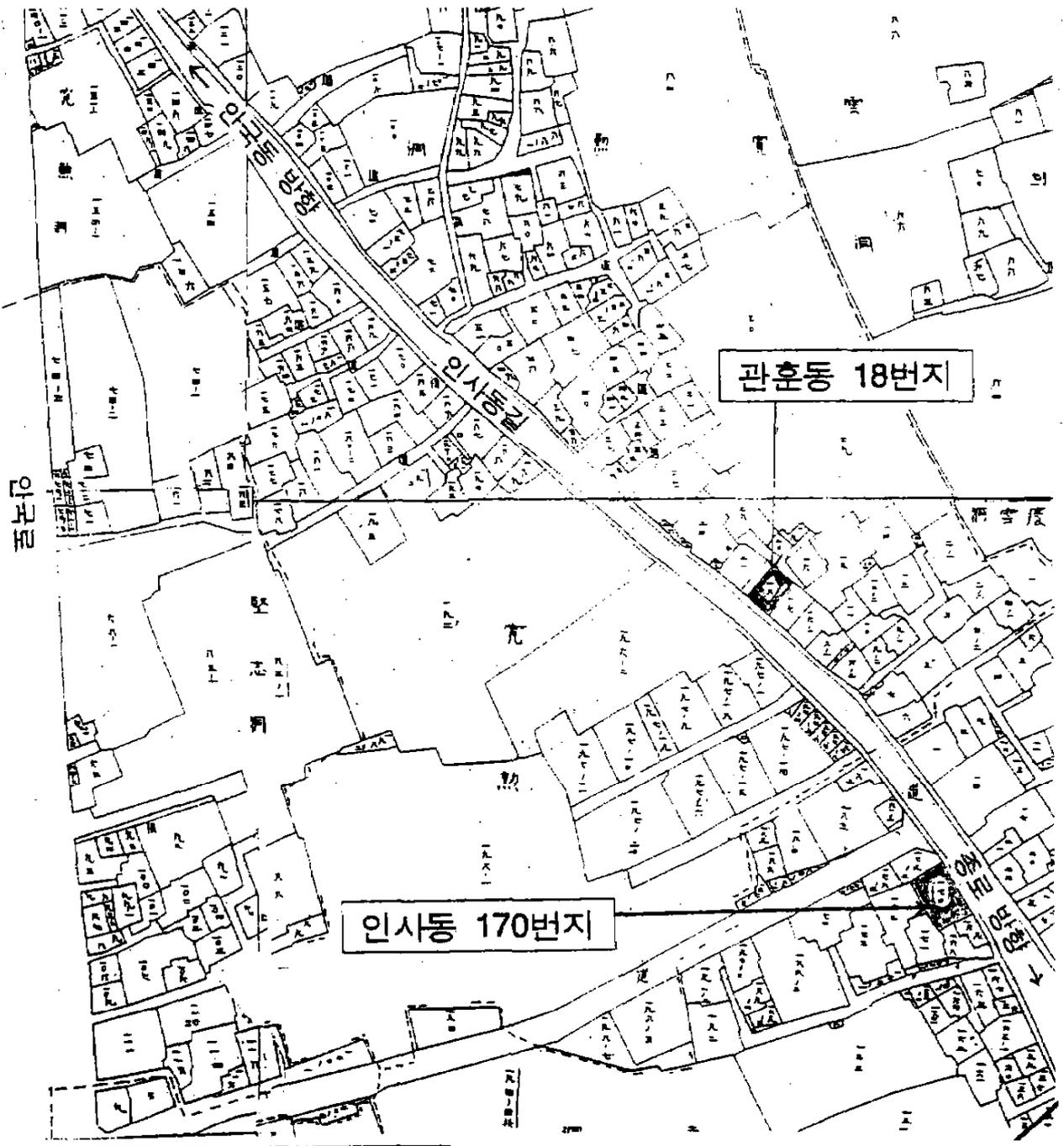
한남서림에서 세 번째 판권지를 사용하던 시기는 이미 방각본과 함께 활판본을 출판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는 판권지에 수록된 “新書籍 發行目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열거된 목록의 일부에 대하여는 책수와 책가를 명시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懸吐天君演義 附心史』	全一冊	三拾錢
『懸吐士小節』	全一冊	四拾五錢
『箋註四家詩』	全一冊	五拾錢
『懸吐彰善感義錄』	全一冊	四拾五錢
『東廂記纂』	全一冊	八拾錢

(31) 이러한 현상이 『출판법』 시행 이후에 설립된 출판사의 일만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방각업자 역시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것이며, 영업장소의 변경에 따라 작품에 판각된 지명과 관련된 간기가 산락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32) 川合新一郎, 1929, 『京城府 地形明細圖』, 朝鮮都市地形圖刊行會, 182~183면 및 201~202면 참조.

(33) 여기에서 언급한 자료는 大正 九年(1920年) 十月 三十日을 발행일자로 가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남서림이 방각본만을 출판한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기존의 판목을 인수하여 출판하는 방법과, 새롭게 판목을 새겨서 출판하는 방법을 통하여 방각본을 출판하기 시작한 한남서림은, 지금까지 검토한 방각소설을 포함하여 비소설 방각본만을 간행한 것이 아니라 활판본의 출판도 겸하였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방각본을 중심으로 하여 출판업을 지속하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각이라는 기술에 의존한 출판 방식과 활판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존한 출판 방식은 결코

경쟁이 될 수 없는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남서림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남서림 역시 활판 인쇄술을 이용한 서적을 출판하여야만 하였다.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최초의 활판본 서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다. 그러나 『縣吐彰善感義錄』에 첨부된 판권지를 보면 大正 六年(1917年) 五月 二十日에 초판을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大正 十三年(1924年)에 발행한 『縣吐彰善感義錄』 제삼판에 수록된 “本書林發行新舊書籍目錄”을 참조하면 책수만 표시된 서목과 책수와 정가가 표시된 서목이 보인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通鑑』	大板	一至三冊
『全』	中板	一至八冊
『全』	小板	初一冊
『史略』	大板	初一冊
『全』	中板	一至三冊
『全』	小板	一至三冊
『千字文』		全一冊
『註解千字』		全一冊
『童子必習』		全一冊
『啓蒙編諺解』		全一冊
『三體草千字』		全一冊
『唐詩長篇』		全一冊
『奎章全韻』		全一冊
『史要聚選』		全四冊
『補遺喪祭禮抄』		全一冊
『東國文獻錄』		全三冊
『剪燈新話』		全二冊
『四禮撮要』		全三冊
『增補天機大要』		全二冊
『註解增補三略』		全一冊
『重訂方藥合編 附補遺方』		全一冊
『二十一都懷古詩』		全一冊
『宋書百選』		全三冊

『註解語錄總覽』	全二冊	
『時行簡牘會粹』	全一冊	
『新撰大方草簡牘』	全二冊	
『詳密註解玉樞寶經』	全一冊	一圓三十錢
『懸吐天君演義 附心史』	全一冊	三拾五錢
『懸吐士小節』	全一冊	六拾五錢
『箋註四家詩』	全一冊	七拾錢
『懸吐彰善感義錄』	全一冊	六拾五錢
『東廂記纂』	全一冊	八拾錢
『申紫霞詩』	全二冊	八拾錢
『蒼松綠竹』	全一冊	三拾錢
『雙蓮夢』	全一冊	二拾五錢

위의 서적목록 가운데 보이는 『蒼松綠竹』과 『雙蓮夢』은 앞서 검토한 세 번째 판권지에 이미 가격표시가 생략된 채 서명만이 보이던 서적이다. 따라서 세 번째 판권지에 서명만 보이던 서적이 모두 방각본의 형태로 출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가운데 일부분은 『蒼松綠竹』이나 『雙蓮夢』처럼 가격표시만 없을 뿐이지 활판본으로 출판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의 판권지에 소개된 서적목록과 여기에서 소개된 서적목록 양쪽 모두에 가격표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서명과 책수만 표시된 서적들은 방각본의 형태로 출판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방각본으로 서적을 출판하는 경우 서적의 가격은 당시의 종이값의 등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1922년에 발행한 방각본 『奎章全韻』의 판권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판권지에서는 먼저 書目들을 나열하고 나서 “冊 價格은 白紙 時勢의 高低를 隨하여 一定하지 아니하기에 記載하지 못한다”고 附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책값은 用紙의 時勢에 맞추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세 번째 판권지 그리고 『현토창선감의 록』의 말미에 나열되어 있는 서적목록 가운데 방각본에 대하여 가격을 표

(34) 安春根, 앞의 글, 18면 참조.

시하지 아니하고 책수만을 표시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하겠다.

참고로 위에서 검토한 서적목록을 살펴보면 활판본으로 간행한 서적들의 책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이름	1920년	1924년	상승률	비고
『懸吐天君演義 附心史』	30전	35전	16.7%	
『懸吐士小節』	45전	65전	44.4%	
『箋註四家詩』	50전	70전	40.0%	
『懸吐彰善感義錄』	45전	65전	44.4%	
『東廂記纂』	80전	80전	00.0%	

『懸吐士小節』, 『箋註四家詩』, 『懸吐彰善感義錄』의 경우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懸吐天君演義 附心史』와 『東廂記纂』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재판을 거듭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마다 책값을 다시 책정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책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처럼 방각뿐만 아니라 활판으로까지 출판 사업을 확장하였던 한남서림이 과연 어느 때까지 출판 활동을 영위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는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활판본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18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오던 방각소설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다시 위기를 맞이한 것은 1909년의 『출판법』 시행으로 인해서이다. 『출판법』의 시행 의도가 방각소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법』의 시행은 이렇듯 저렇듯 하면서 방각소설의 출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설립된 출판사가

한남서림이다.

마지막까지 방각소설을 취급하였던 출판사가 한남서림이라는 점에서 방각소설 변모의 마지막 모습을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방각소설을 통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경판방각소설은 판권지를 첨부하여야만 하였다. 판권지에는 기본적으로 인쇄년월일, 발행년월일, 저작자(편집자)의 성명과 주소,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 발행소의 명칭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만 하였다. 방각소설에 첨부되어 있는 한남서림의 판권지로는 모두 세 종류의 판권지가 사용되었다. 판권지마다 수록된 사항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남서림의 영업 활동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한남서림에서는 52종의 경판방각소설 가운데 22종의 경판방각소설을 출판하였다. 이들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22종의 방각소설을 구분하면, 같은 제목으로 발행한 다른 판본이 없는 경우와 같은 제목으로 발행한 다른 판본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같은 제목으로 발행한 다른 판본이 있는 경우 또한 셋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데, 첫째는 중간에 판식의 변화가 없는 판목을 인수하여 출판한 것, 둘째는 중간에 판식의 변화가 있는 판목을 인수하여 출판한 것, 셋째는 한남서림에서 직접 판목을 판각하여 출판한 것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이는 한남서림에서 직접 판목을 판각하여 출판한 것과 이미 사용해 왔던 판목을 인수하여 출판한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앞서의 구분을 8따르기로 한다.

한남서림에서는 방각본뿐만 아니라 활판본도 출판하였다. 세 번째 판권지를 사용하던 시기에 이미 활판본을 출판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방각본의 출판을 출발점으로 삼아 출판을 시작한 한남서림에서 활판본을 출판하고 있다는 것은 곧 방각본 고전소설을 대신할 매체가 활판본 고전소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활판본 고전소설이 방각본 고전소설을 대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것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도서를 둘러싼 문화 자체의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방각본 도서를 기피하는 문화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활판에 의존한 매체가 일반화된 시기에 고전소설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방각본 도서의 구입을 회피하고 활판본 도서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서 도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방각본 도서 특히 방각소설은 자연스레 시장으로부터 퇴장 당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한남서림이 언제까지 영업 활동을 계속하였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는 한남서림에서 출판한 활판본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남서림의 사주인 백두용, 인쇄자로 나오는 조명천과 김현수에 대한 전기 연구 또한 시급히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필자 : 인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